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화요 성경공부반을 모집합니다. 과목: 레위기 시간: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개강: 9월 4일 기간: 12주 교재비: \$15
3. 세례자를 위한 예비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신청바랍니다. 교육: 8월 26일 주일(3주간) 세례식: 9월 16일 주일 2부예배
4. 2019년 단기선교를 위한 예비 모임이 오는 9월 1일(토)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참여 바랍니다.
5. 오는 29일 수요일 예배는 베트남 공동체 주관입니다. 공동체 식구들은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6. 권사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
7. 손용근집사 장녀 창미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시: 토요일(25일) 오전 11시 장소: St. Leonards Chapel and Gardens(1 St. Leonards Rd, Takapuna).
8.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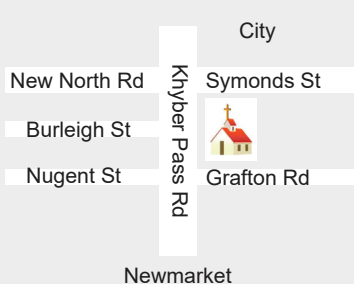
2018년 8월 19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 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하박국 3:17-18
◎ 찬 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대 표 기 도	손조훈 집사
성 경 봉 독	호세아 11:1-4, 8-11
찬양대 찬양	주 찬양해/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태한 목사
찬 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8월 교회 사역

8월 10일(금요일): 저녁기도회
 8월 19일(주일): 전도주일
 8월 26일(주일): 권사기도회
 8월 29일(수요일): 공동체 주관 예배

8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최희숙 집사
 다음 주일: 정관영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조주찬 형제
 8월 29일 수요일: 이광희 장로
 8월 29일 애찬: 김은우 집사
 9월 2일 주일: 박후임 권사
 9월 2일 청년부: 소정훈 자매

8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허영순/손조훈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김민경/민경아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박후임권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21:18-22
설 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지라/이태한목사
찬 송	310장
주 기 도	다같이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이에은 자매

금주의 기도제목

1.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의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질병과 싸우고 인생의 역경으로 힘겨워 하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선한 역사가 있도록.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네팔 전기봉 선교사가 보내온 '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는 순례의 길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길을 띄우고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에게 장애물은 사막의 띄약별, 험산준령이나 혹한의 만년설이나 우거진 숲만이 아닙니다. 더 큰 장애물은 그 여정 속에서 스물스물 밀려오는 깊은 고독감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길에서 만나 충돌하고 융화하며 흥망성쇠를 이어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출애굽 통로, 동서 문명을 혼합시킨 알렉산드 대왕의 동방원정의 길, '모든 길은 로마로'의 팍스 로마 가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비극적 충돌을 야기한 십자군 원정 길, 동서 교류의 문물을 오가게 한 실크로드 등 인류 역사의 큰 변화,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영웅의 역사, 생명을 살려내는 선교의 역사도 모두 다 길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곳의 농경문화와 농경신(바알과 아세라)을 자연스레 수용하므로 광야 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임재를 알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강렬함을 이스라엘 일상생활 저편으로 감추고 말았습니다. 거친 광야 길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보호를 절실히 체험했던 장소였고 그분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후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 문화에 동화되고 예속되어 참된 신앙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로 부릅니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나그네는 정체성을 잃고 이 땅에서 기생하는 온갖 정욕에 물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헛된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비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숙도, 영성의 자람도 멈추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달콤하고 감미로운 허니문이 평생 지속되려면 세상의 욕망의 성에 안주 할 것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길에서 옛된 신부의 순애보를 써 내려가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너와 나를 생명으로 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제목

1. 강건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선교사로서의 길을 잘 가도록.
2.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